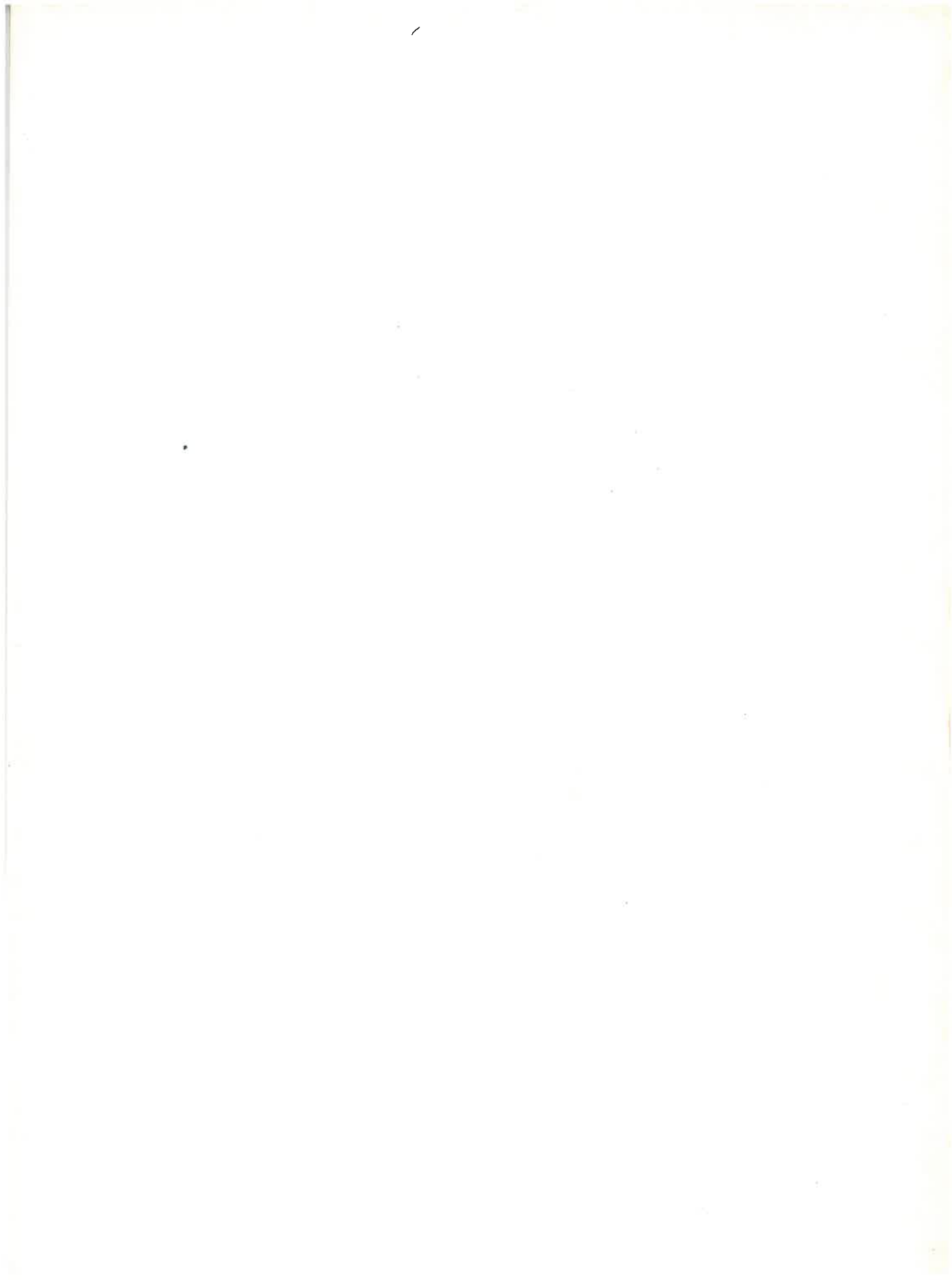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 창립대회 및 초청강연회

- ◆ 때 : 1994년 4월 2일 (토) 오후 2시
- ◆ 곳 : 상 주 시 문 화 회 관 대 강 당
- ◆ 주최 :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



식 순

제 1 부

- 풍 물 놀 이 공 연 놀이패 “어울림”
- 개 회
- 국 민 의 례
- 창립선언문낭독
- 대 회 사 박찬선 (준비위원장)
- 축 사 정장식 (상주시장)
- 격 려 사 이이화 (동백사협의회대표, 역사문제연구소장)
- 경 과 보 고
- 임원구성 및 인사

제 2 부

- 수화놀이공연 및 민중의 노래 중창
(‘소망의 빛’ 과 산업대동아리)
- 초 청 강 연 신영우 (충북대교수)
-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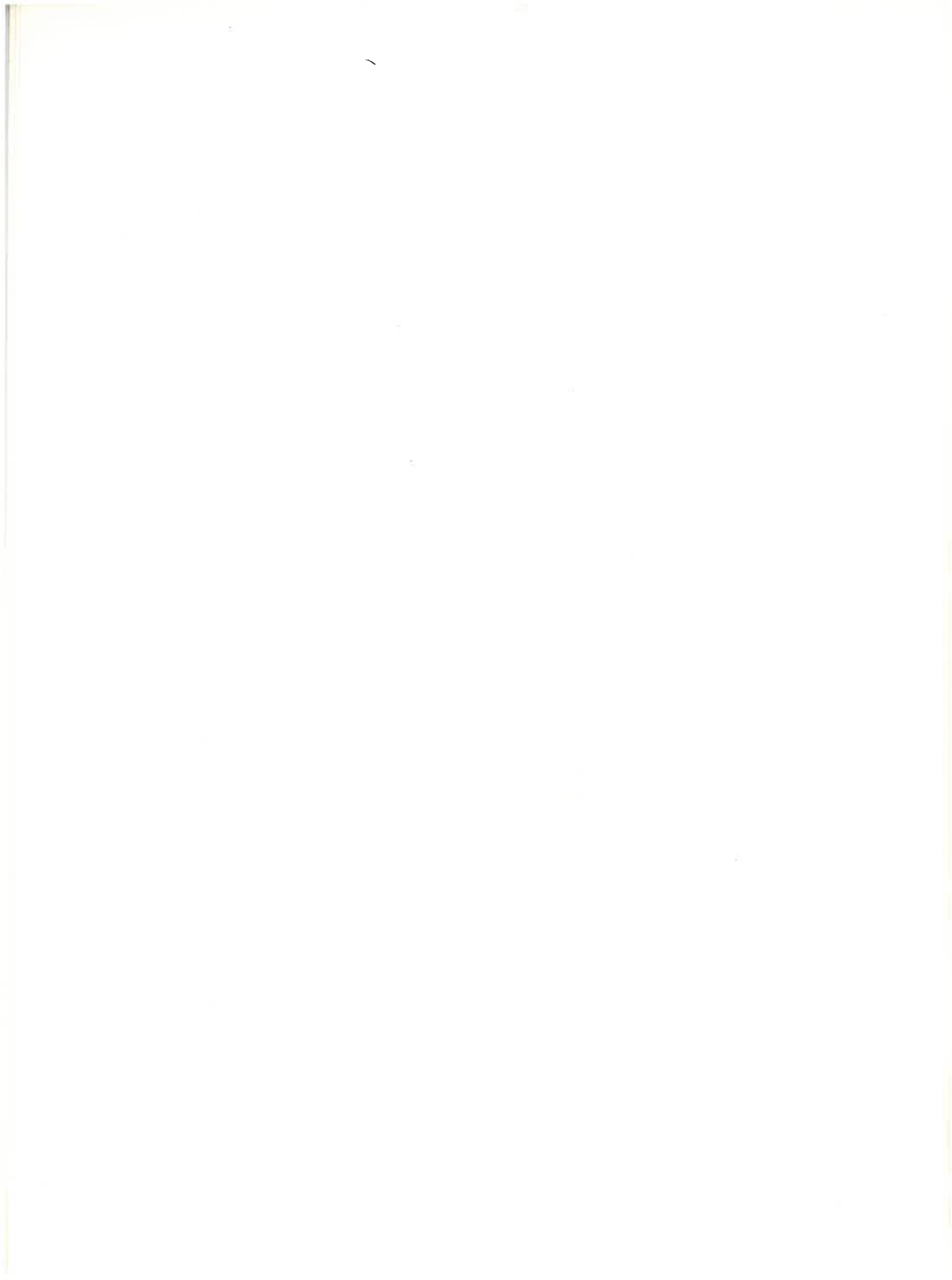
차 례

□ 창립 대회

○ 창립선언문	5	
○ 대 회 사	준비위원장 박찬선	7
○ 축 사	상주시장 정장식	8
○ 취지 및 목적	9	
○ 사업회 조직표	9	
○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계획	10	

□ 초청강연회 (상주동학농민항쟁강연)

○ 동학농민전쟁과 향촌사회, 그 역사적 의미	강사 신영우	12
--------------------------------	--------------	----



창립선언문

“우리가 의(義)를 들어 차(此)에 지(至)함은...창생(蒼生)
을 도탄의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한 세기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동학농민군의 장엄한 창의를문을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상주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나 우리는 이 출발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자랑스런 민족사의 유산을 닦아 빛내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민항쟁이 일어난지 어언 한세기!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폭압속에서 분단된 상황이 강요하는 이념적 혼란 속에서, 그리고 다시 외세의 간섭앞에 뒤흔날 수 없었던 부끄러움 속에서 혁명의 유산은 녹슬고 소실되었다. 그 날 1894년 9월에서 12월사이 상주읍성과 북실전투에서 순절한 농민군의 정기와 단심이 마을마다 살아 숨쉬었을 이 땅.

갑오년의 농민항쟁은 이 땅의 민중이 떨쳐 일어나 민족과 역사의 주인됨을 전세계에 선포한 한민족 근현대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지배층의 무능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그 민족적,민중적 혁명 이념의 실현이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사 최대의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 상주농민혁명의 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새로이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현실속에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한 실천을 통해 참된 민족적,민중적 이해와 지향을 실현시키는 것만이 농민혁명의 참 뜻을 바르게 잇는 일이 될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특정계층의 계급이익이나 특정지역의 지역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이어서는 안되리라는 것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 당당한 조건속에서 깨끗한 주체로 서게 만드는 일, 작은 일속에서 원칙과 끈음을 실현해내는 일, 작은 노력을 한데 모아 보다 큰 힘을 엮어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라 믿는다.

오늘 이 소중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출범시키는 우리들은 지위와 신분과 문벌을 초월하여 아직도 구천에 떠돌고 있을 원혼을 위무하고 UR협정으로 유례없이 곤궁에 처한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주체적 힘이 되도록 이름없

는 사람들의 소중한 뜻을 모을 것이다. 우리들의 힘을 한데 모아내는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건강한 힘과 희망이 솟아날 것을 믿는다.

오랜 좌절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길들여진 체념과 보신주의의 몸짓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반봉건,반외세를 소리높여 외쳤던 선조들의 기백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에서 뿌듯하게 확인한다. 이 힘과 기백속에서 되살아날 자유와 평등의 통일조국을 그리며 오늘 상주동학농민혁명의 진리와 진실을 위해 굳게 나선다.

1994년 4월 2일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 회원 일동

大 會 辭

창덕가(唱德歌) 한 귀절에서
심상한 풀잎의 음성을 듣는다.
아픔의 빛을 품고
어둡고 먼 산하(山河)를 넘어온 사내여
오늘 우리는 가슴이 막혀
박제(剝製)가 된 피애로.
말해다오.
북더기 같은 거친 손에서
깨끗한 피의 불꽃이 밝혀짐을,

짓밟혀 온 가슴에서 빛의 뿌리는 더욱 튼튼해 짐 을,
쓴 익모초(益母草) 질은 무리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여름을 나아하는
그래서 박쥐의 거짓을 알려야 하는
접신(接神)의 땅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
팔매질하는 아이들의 손바람에 이는
하늘 가르느 풀잎소리를
듣는다.

필자의 졸시 尙州·2 부제 東學으로 된 전문입니다.

오늘 뜻깊은 상주동학농민혁명백주년 기념사업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東學을 통해 가졌던 심상의 편린을 보여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1894년 조선사회가 봉건적 질곡과 외세의 침략 앞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반침략 번봉건의 기치를 내건 상주동학농민군의 투쟁은 일제의 무력앞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뚜렷이 한 민족주의적 민중운동의 선구적 역할은 근대사의 변혁주체로서 등장했습니다.

오늘 상주동학농민혁명의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업회를 조직함은 이 지역에서 희생된 많은 농민군들의 외로운 혼령을 위무하고, 민족정기에 입각한 자각적 정신을 되새기자는 것이며, 나아가 우루과이라운드의 높은 물결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어서는 동학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끝이어 자랑스런 상주동학농민혁명을 현창할 창립대회에 기념특강을 해주실 충북대 신영우교수님과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대회가 있기까지 기꺼이 밀어주신 뜻을 같이한 여러분과 이 자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의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21자로 된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주문을 드리면서 대회를 가름합니다.

단기 4327년 2월 22일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장 박 찬 선

祝 辭

지금 이순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월은 희망의 달이자 항상 變化와 改革을 추구하던 季節이었으며 또한 이땅의 민주화를 爲해 일어섰던 1960년의 4. 19 學生義學도 이 崇高한 季節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깊은 4월에 一百年前 民族의 自尊을 지키려고 분연히 일어섰다 희생된 東學農民軍들의 넋을 위무하고 그 堂堂한 精神을 肅穆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오늘의 이 모임은 매우 뜻있는 行事라 하겠습니다. 이에 尙州東學農民革命 百周年紀念事業會의 創立을 祝賀하면서 全 市民의 이름으로 聲援을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尙州人들은 이 나라의 바른 歷史를 爲해 많은 일들을 해 왔으며, 忠臣이나 孝子, 烈女등 歷史에 記錄되고 있는 훌륭한 人物들이 많이 排出된 고장이라 할것입니다.

또한 壬辰倭亂과 같은 國難을 당했을 때도 우리 尙州人들은 義兵이 되어 倭敵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한 빛나는 傳統을 가진 우리 尙州人들이기에 一百年前 帝國主義 勢力의 侵略으로 인해 빛어지는 國家的인 危機 앞에서도 우리 祖上들은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를 부르짖으며 堂堂히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尙州에는 그 當時 農民들의 피어린 抗爭의 歷史를 일러주는 文獻이나 사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祖國과 民族의 危機를 구하고자 스스로 떨치고 일어섰던 이 땅의 모든 義人들을 追慕하고 그 뜨거운 精神을 繼承하려는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民族의 精氣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에 잠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特히 U.R協商의 妥結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의 農村 現實을 考慮할 때 義兵이나 東學農民軍들의 救國精神을 繼承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切實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競爭力 있는 商品을 開發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애써 찾아 지키려는 生活運動도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國際化, 開放化時代에 對備한 우리들의 生活姿勢이자 外勢에 맞서 民族의 主體性을 지키려 했던 東學農民軍들의 精神을 올바르게 이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次元에서 東學農民革命 百周年을 紀念하는 이 事業은 U.R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와 新韓國 建設을 爲한 智慧를 歷史에서 찾아 實踐하는 方向으로 發展되기를 希望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事業이 우리 尙州의 빛나는 얼을 다시 되살리는 崇高한 作業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尙州가 地方化, 開放化時代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앞서가는 고장이 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一百年前 民族의 自尊을 지키기 爲해 들불처럼 타올랐던 尙州東學農民軍들의 偉大한 精神을 追慕하면서 다시 한번 東學農民革命 百周年紀念事業會의 創立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1994년 4월 2일

상 주 시 장 정 장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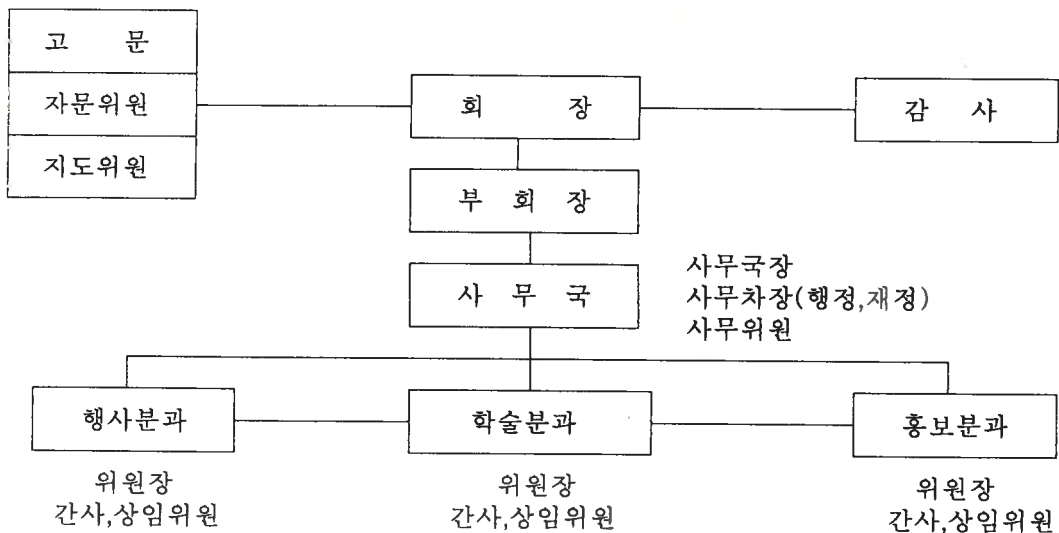
취지 및 목적

1994년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일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 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우리 민족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아직까지도 올바르게 조명되거나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상주지방에서 있었던 이 시기의 농민항쟁은 근간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사실이 학계에 조금 알려졌을 뿐 그 역사적인 의미와 성격은 제대로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 뜻깊은 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이하여 이 고장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던 농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숭고한 구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범시민적인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회는 우리 상주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체적인 조명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밝혀 당시 농민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만은 옮겨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회의 조직표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계획

1. 사업의 방향

- 1)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 받는다.
- 2) 근대화와 민족 자주 정신을 운명으로 구현한 농민군의 업적을 기린다.
- 3) 농민전쟁의 와중에서 산화한 모든 영령들을 위무한다.
- 4)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과 전적지를 정화하여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고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다.
- 5) 이 혁명의 반외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임란시 순절한 영령들도 아울러 위무한다.

2. 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지침

- 1) 이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2) 이회는 적국연맹에 가입하고 다른지역과도 서로 연대하여 각종의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 3) 이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소관 분과에서 담당하나 사업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 각 분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행한다.
- 4) 모든 행사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나 재정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3. 사업의 내용

- 1)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제정
역사적인 사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주의 농민군들이 상주성을 점령했던 10월 20일부터 일본군의 기습으로 농민군이 와해되던 26일까지의 기간을 '동학농민혁명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상주시·군지역에서 기념행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 2) 동학농민군 현창(顯彰)사업
동학농민군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술토론회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걸개그림과 미술작품을 공모하며, 연극과 음악회, 풍물과 탈춤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백일장도 개최하며 당시 농민들의 구호나 격문을 소재로 한 서예전시회도 관계 인사들의 협조를 받아 개최한다.

3) 합동위령제 추진

농민항쟁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든 영령을 위무하고자 합동위령제를 올리며 그 원혼을 달래고자 상주시·군 일원에서 풍물패들에 의한 진혼굿을 한다.

4) 유적지 정화사업

한 때 동학농민군들이 점령했던 상주성이나 포로가 된 농민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던 곳의 적당한 장소에 그것을 기념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5) 반외세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호국대제 거행

동학농민군들의 반외세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임진왜란시 순절했던 영령들을 위무하는 호국대제를 거행한다. (북천전투, 창의진·충보군·상의진 의병)

東學農民戰爭과 鄉村社會, 그 歷史的 意味

신 영 우 (충북대 교수)

<1894년 봄 전국은 농민봉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동학을 중심으로 결속한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대변란에 외세가 개입하면서 청과 일본 양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참극이 일어났다. 그 틈을 타서 일본군이 경북궁을 습격해서 국왕을 인질로 잡고 정권을 좌우하는 등 나라의 운명은 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가을에 와 다시 봉기한 농민군은 일본 침략군과 관군 그리고 보수세력의 민보군과 대규모 전면전을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그 뒤 조선국가는 일본 침략군에게 그 이상의 강력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1894년의 대변란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근대화의 방향을 둘러싸고 벌인 보수세력과 혁신세력 간의 내전, 그리고 동아시아의 오랜 사대교린 외교관계가 무너진 후 열강 중심의 국제정치질서에 새로 편입된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위해 벌인 외전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지녔다.

이 문제를 다룬 역사 논문은 어느 주제보다 풍성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주장은 다양하다. 그래서 성격 파악은 물론 용어조차 일치하지 않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00주년이 돌아와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이 대변란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문제였다. 최근 흥미있는 일화가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우표를 만들자는 회의에서 생긴 일로서, 어떤 이름을 쓰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동학혁명이 옳은가, 아니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해야 하는가? 또는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혁명, 갑오농민봉기, 갑오농민운동, 1894년 농민전쟁, 1894년 농민혁명, 1894년 농민봉기, 1894년 농민운동, 동학란 등등 어떤 것이 좋은가?

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 마침내 나라가 운영하는 역사연구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물어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학계의 여러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을 잘 아는 바라 여기에서도 정해주시지 못했다. 그래서 기념우표는 이름을 얻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전쟁인가, 혁명인가, 봉기인가? 또는 동학을 넣어야 하는가, 간지(干支)로 연대를 나타내는 갑오를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서기 연대를 넣어야 하는가? 동학란으로 써야 옳은가?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나 기본자세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지면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

나름대로는 '동학농민전쟁'이라고 쓰고 있지만, 용어를 어찌 쓰던지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이 대변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혁명이든 전쟁이든 운동이든 이 대변란의 중심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였다. 그리고 경상도와 강원도 및 경기도와 황해도에서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런 까닭에 전국 각처에서 「수백만명」씩 벌였던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집약해서 그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군현 단위의 향촌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리고 대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군현은 나라의 축소 형태로 운영되었다. 관청의 기구나 신분제의 구조 등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관계가 모두 모여져 있었다. 어떤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문제는 향촌사회에 살던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한지역의 자료를 집중해서 모으고 그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즉 현지에 직접 가서 모든 자료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선정한 지역은 경상도 북부지역과 충청도 동남부 일대였다.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책상위에서 자료를 이리저리 엮어 정리하는 일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었다. 하지만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을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후손을 만나지도 않은 채 선입견 속에서 글을 쓰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활동에 대해 문헌기록과 노인들의 증언 그리고 족보의 고문서와 일기, 또 문중과 사회 조사를 모아서 논문을 엮어내게 되니까 이를 받아본 후손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였다. 모두 그렇다는 것이었다. “옛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그런 뜻이 있는 것이냐?”고 반겼다. 그것은 우리 삶속에 면면히 내려온 역사를 처음 자신의 문제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0여년 동안 「동학농민전쟁」을 주제로 하는 몇개의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다. 올해 그 100주년을 맞이하자 먼저 언론에서 이 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어 자료와 논문을 보내달라는 사람이 잇달았다. 특히 현지를 찾아서 확인한 이들은 연구방법과 내용에 관해 여러가지를 물어왔다.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관한 생생한 줄거리에 흥미를 보였다.

이 글은 필자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당시 향촌사회의 실상을 짚막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중심무대는 경상북도 상주 일대이지만 동학교단과 주변 지역의 사정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동학농민전쟁」이 향촌사회 속에서 자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자 한다.>

1.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의 사회사정

지금 경상도 상주에는 동학 또는 동학농민전쟁에 관해 알려주는 눈에 띄는 흔적이 아무데도 없다. 그렇다고 100년 전 그 엄청났던 소용돌이가 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여러 마을과 그 마을 속의 가족사 속에 전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지금과 매우 달랐던 당시의 모습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상주목은 큰 고을이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비옥한 들판이 넓다랗게 펼쳐졌고, 충청도 접경지역은 험한 골짜기가 들어찬 산줄기가 뻗어내렸다. 넉넉하게 먹거리를 거둘 수 있고 여러가지 삶에 쓰이는 생산물이 풍부했다. 언제부터인가 상주의 농민들은 물길과 땅길 두쪽으로 장삿군들이 모여드는 길목인 상주의 잇점을 살려서 시장에 내어파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떤 수확물도 배편을 통해 먼데까지 잘팔려 나갔다. 상주에서 이름난 것은 쌀과 고치 그리고 꽃감이었다. 해마다 너른 논에서 넘치도록 벼이삭이 익어갔고 초겨울은 꽃감켜는 마을에 활기가 솟았다. 고치와 목화는 무게있던 상품이였다. 땅의 크기에 비해 논보다 훨씬 이익이 높은 산물이라서 다투어 생산했다. 수확철에는 읍내 객주집이 사고 팔고 하느라고 장삿꾼과 온갖 물건들이 넘실거렸다. 특히 무명 옷감은 추워서 목화를 심지 않는 강원도로 팔려 나갔고, 또 군역세로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컸다.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모습을 바꾸게 했던 이러한 흐름은 농민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해 주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절약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돈과 곡식이 생기는대로 논을 사고 밭을 사서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양반이 재산을 모으면 사회 지위를 높이려고 자식을 가르쳐서 과거를 치르게 했다. 벼슬을 사기도 했다. 상민인 경우 공명첩을 사는 등 신분을 올리는데 열중했다. 신분제사회에서 천대를 받지 않으려는 애절한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상에 힘있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 관리는 관리대로 토호는 토호대로 이들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호랑이눈을 뜬채 노렸다. 왕조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렸다. 이 세금은 걷는 도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은 차액은 말단 관리나 심부름일을 맡은 사람 손에 녹아들어갔다.

본래 가난한 농민은 그들대로, 커가던 부농은 또 그들대로 빼앗기는 양만큼 불만이 쌓여갔다. 힘없는 양반들도 차이는 있었지만 세금으로 빼앗기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욕심많은 목사가 한번 거쳐가면 갈퀴리로 낙엽을 걷어가듯 농민들의 재물은 꺼풀이 벗겨졌다.

곡식을 심어먹을 땅이 전혀 없는 많은 농민들은 대개 배우지 못했다. 지주의 땅을 빌려서 어울이해서 살아가거나 품팔이꾼으로 겨우 지냈던 이들은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춘궁기에 굶지 않는 일이 가장 큰 바램이었다. 한해 내내 힘들

여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가 끝나면 수확의 반을 지주집에 저다 주어야 하고, 남은 것도 이러저러한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에 허덕였던 것이다.

경상도 북서부 일대의 산골 마을에는 1860년대 초부터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봉화, 영천, 풍기, 안동, 의성을 비롯해서 예천, 용궁, 문경, 함창, 상주, 선산, 인동, 개령, 김산, 지례, 성주, 거창 등 각 군현에 동학 도인들이 생겨난 것이다.

동학은 향촌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다가왔다. 개혁을 이룬 뒤에 나타날 이상사회를 제시한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농민들이 현실에서 부딪친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동학의 교리와 동학도의 활동은 각종 체제의 잘못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양반지배층은 자신들의 가진 특권을 반대하는 성격이 분명한 동학을 위협시하게 되었다.

도남서원은 상주의 유생들이 모여서 조선사회를 이끄는 이념인 유교의 경전을 익히고 가르치던 전당이었다. 주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학의 새로운 주장과 동학 도인들의 활동은 유생들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동학에는 반상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고 있어서 비천한 계층과 홀아비 홀어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것은 1863년 12월 도남서원에서 상주 각 서원에 보낸 통문 내용의 일부이다. 동학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를 잘 알려준다.

유생들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가는 현상이었다. 또 동학은 무리를 모으는데 열심이어서 한 마을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을 전체가 빠져들고 더 나아가 한 고을 모두가 다 들어갈 걱정도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양반지배층의 우려는 왕조정부에도 알려졌고, 마침내 동학을 창시한 교조 최제우는 처형되었다. 그러나 상주는 그후 오히려 동학이 몰래 퍼져나가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제2세교주 최시형이 상주 여러 마을에 숨어있으면서 각 처로 교세를 늘려나갔던 것이다.

이 때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나빠져갔다. 과감하게 개혁정치를 펴던 대원군이 경제정책에 실패를 거듭하고 권력에서 밀려난 뒤인 1876년 정부는 일본과 근대식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서양과 국교를 확대했다. 전에 없이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와 머무는 것은 물론 그들의 상품이 국내에 대거 밀려들어오자 백성들 사이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미 청나라 수도가 서양 군대에 짓밟혔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나간 바 있었다. 침략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 값싼 상품이 들어오면서 같은 물건을 만들거나 팔던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쌀 등 국내 농업 생산물이 빠져나가자 물가가 폭등했다. 지주들

은 쌀값이 올라서 이익이 되었지만 품팔이에서 곡식을 사먹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심해졌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 지는 모습이 전보다 뚜렷해졌다.

동학은 창도될 때부터 외세의 침략에 맞서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임란과 병자호란 시 극심한 피해를 입힌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매우 높았다. 즉 서양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교확대 이후 동학의 교세는 날로 커져갔다. 잘못된 사회를 고쳐야겠다는 생각과 외세가 침략하는 뒤숭숭한 시국이 교세 확대의 기회가 된 것이다.

상주 경내의 동학 조직의 상주목 관아와 관군이 주둔해 있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렸다. 속리산과 팔음산 그리고 백화산 부근이었다. 여러 마을이 동학마을로 변했다. 산을 가로지르는 오솔길로 충청도의 동학 마을과 이어져서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산골짜기에서 교세를 키우던 동학은 1880년대 들어와 급속히 확산된다. 처음엔 충청도 내륙으로 퍼져나가다 곧 전라도와 경기도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간 것이다. 1893년 교주 최시형은 충청도 보은의 장내리에 대도소를 설치한다. 이 결정의 의미는 작지않다. 숨어다니던 동학 도인들이 처음으로 본부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전국의 도인들이 보은의 교단에 직접 와서 접주 임명을 받거나 지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2. 1894년 상주의 동학농민전쟁

1894년 봄 전라도에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 사건은 갈수록 놀랍게 커져갔다. 작은 고을 고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이 전라감사가 파견한 영군까지 황토현에서 격파함으로써 전국을 진동시켰던 것이다. 잇달아 「서울에서 급파된 정예군을 물리치고 감영이 있는 전주를 점령하였다. 또 관군과 화약을 맺은 뒤 새로 임명되어 내려온 감사의 협조 아래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세웠다. 이 집강소에는 동학도인들이 들어차서 잘못된 예전의 정치를 바로잡고 향촌사회의 질서를 고쳐나갔다.」는 말이 퍼졌다. 이소식은 상주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우선 몰래 움직이던 동학 도인들이 아예 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접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끌어들었다. 그러자 농민들이 다투어 입도하였다. 관아에서는 이전처럼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동학 도인들을 붙잡아 가두거나 불법으로 재물을 빼앗지 못하게 되었다. 적은 수의 관리들이 너무나 많아진 도인들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6월 말 서울에서는 끔찍한 말이 들려왔다. 경북궁에 일본군이 기습해 들어가 상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키는 군영도 습격받아 무장 해제가 되었고, 조정도 일본사람과 밀착된 개화당이 대신 들어섰다고 하였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외적이 침략하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즉각 유생들이 나서서 의병을 일으켜야 했다. 그러나 유생들은 힘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종래 양반 유생들이 향촌사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호농민을 압도했던 지주였기 때문이었다. 의병을 일으킨다고 해도 군사가 되어야 할 농민들이 양반들의 말을 들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신분과 경제 양면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부리는 대상이었던 농민들이 거꾸로 동학에 들어가 때를 지어 양반 지주를 위협하고 있었다.

여름으로 들어서자 상주사람들은 침략자인 일본 군대를 그들의 땅에서 직접 맞부딪치게 되었다. 일본군은 청과 전쟁을 위해 부산과 서울을 잇는 요지마다 병참 기지를 만들었는데, 상주 경내의 낙동에도 병참부를 설치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병력을 주둔시킨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함창의 태봉에도 병참부를 두었다. 외세를 배척한다면 멀리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병참기지부터 내몰아야 했다.

새력이 커진 동학 조직은 마을의 옛 질서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양반과 상민, 지주와 전호, 상전과 노비로 이루어진 옷사람과 아랫것 사이의 차별이 옛 질서의 뼈대라면 동학 도인인들은 이 뼈대부터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양반이 특권을 가진 것을 이용해서 상것들을 억눌러 땅을 빼앗거나 밋진 것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경우 보복에 나서고 있다.

지주가 전호농민을 대할때 사람같지 않게 보고 심하게 대하거나 가을걷이가 끝난 뒤 지나치게 많은 지대를 가져가서 가난한 농민이 한을 품은 경우 집중 공세를 받았다. 또 춘궁기에 돈 몇푼과 곡식 얼마에 사들인 노비를 흑독하게 부리며 모질게 굴었던 상전들도 양갓음의 대상에 들어있었다.

상주 관아에서 조세를 매겨서 걷어갈 때 농민들과 바로 맞닥뜨렸던 것은 각 면리를 다니며 실무를 맡아온 향리였다. 서원 또는 색리라 불렸던 이들은 지나친 수취로 불만이 가득한 온민들의 첫째가는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이 지역의 세금 부과가 무거웠건, 역대 목사의 욕심의 도를 넘었건, 또는 증가병서 이들이 더 보태서 거두고 가로챘건 그것은 가릴 바가 아니었다. 동학에 들어가서 스스로 조직을 갖고 세력을 키운 농민들은 특히 포박한 향리들을 노려서 공세에 나섰다.

향촌질서의 파괴는 단계를 밟아 이루어졌다. 처음엔,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지난 일에 대해 분풀이하는데 그쳤다. 어느 곳에서는 원한에 찬 농민들이 지주를 끌고가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지주의 아들들이 때린 사람을 찾아 죽여서 다시 복수하기도 했다. 관청이 제 할일을 하지 못하니까 온갖 보지 못하던 일이 생겼던 것이다.

다음엔, 접주가 도인들 수십명과 함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나서고 있었다. 양반 지주와 같은 힘있는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아 잘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으면 힘없는 이를 도와서 함께 받아내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정국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 의도는 갈수록 분명해졌고, 또 조정에 대해서 부리는 행패가 서울에서 그때그때 전해졌다. 그러자 전국 각 군현에서 실제로 등장한 동학 도인들이 사회 개혁보다 더 급한 문제가 침략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관군에 비해 강력한 무력을 가진 일본과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했다. 이 힘은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군량을 쌓아두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 군현의 동학 조직은 이 준비에 적극 나섰다. 상주도 상황은 같았다.

동학 접조직은 포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이 나오기 마련이라서 도인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것이다. 상민과 양반을 물론하고 입도자가 늘어나자 마당에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입도식을 치루기도 했다. 일단 동학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양반과 상놈을 가리지 않았다. 서로 절하고 존댓말을 썼다. 같이 쓰는 호칭이 “접장” 이어서 서로 “김접장, 이접장!” 하고 불렀다. 상전과 노비가 같이 들어가도 그러했다. 그러니 도인들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종래의 질서가 지켜질 수 없었다. 이처럼 개혁과 전쟁 준비는 다른것이 아니라 합쳐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무기와 군량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가난한 농민들이 돈과 곡식을 낼 수 없는 까닭에 접주가 부유하면 모든 재산을 내어 썼다. 그래서 지금도 접주 후손들 사이에 “동학에 재산을 다 떨어먹었다” 는 말이 돈다. 접주가 부유하지 못하면 넉넉한 도인들이 뒤를 댔다. 그러나 막대한 경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부농과 지주에게 달랄 수밖에 없었다.

거꾸로 부농과 지주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미리 알려주고 돈과 곡식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았다. 대개 갑자기 한 밤중에 들이쳐서 바치기를 강요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강요했다. 꼭화적에게 당하는 것과 같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다. 심하게 당할 때는 묶인 채 끌려나가 흠뻑 두들겨 맞았다.

도인들은 마치 개혁활동의 하나로 부농 지주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명분을 앞에 내세워서 항변을 못하게 했다. “동학군이 무장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 일본인들을 싸워서 물리친다” 는 명분이었다. 대일전쟁 주장에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농민들에게 몹쓸게 굴었던 양반 지주들은 이 때 정말로 혼이 났다. 무단 토호로 이름 높았던 진주 강씨의 소리와 봉대마을은 농민들의 집중 보복을 받았다. 때를 지어 몰려가서 마을을 파괴했다. 불을 질러도 다 타버리지 않는 집은 기둥에 밧줄을 걸어 당겨서 쓰러뜨렸다. 이 결과 위풍 당당했던 양반마을 두 개가 폐허로 변했다. 소리마을은 그 뒤에도 집이 들어서지 못하여 논으로 바뀌어졌다. 또 명당 자리를 빼앗은 양반에게는 선대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꺼내는 식으로

전날의 굴욕감을 풀었다.

이렇게 동학 세력이 상주 일대의 향촌사회를 압도하고 있던 8월 장내리의 교단에서는 무장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을 살펴보면 교단의 통제 밖에 있었던 전라도 중심의 남접이 아니면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던 북접지역의 실상을 알게 된다.

이것은 “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금을 제때에 내도록 힘쓸 것이며 관청에 죄를 짓지 말 것, 누구를 막론하고 오래된 빛이나 최근의 빛에 절대 간섭하지 말 것,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헤치고 돈과 재물을 강탈하는 사람은 실정에 따라 관에 알려서 죄과를 받도록 할 것, 각 포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법소와 포덕소의 가르침을 따라서 받들 것” 등이다.

이미 말단 조직은 교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수도생활을 떠나 개혁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당연히 여러 마찰이 일어났다. 전이라면 관아에서 군교가 나와 처벌되었을 일도 자주 벌어졌다. 그렇지만 군교나 향리들은 읍내에서 꿈쩍 않았다. 공무를 위한 출입도 삼가했다. 그러니 세금이 건힐 리 없었다. 농민들도 널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경상도 북부 군현에는 교단에서 파견된 인물이 순회하면서 개혁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검찰관 또는 안렴사로 불렸던 이들은 거창한 행장을 차리고 수행원을 딸린 채 여러 군현을 돌아다녔다. 이들이 이르는 곳마다 농민들이 모여들어 장터를 이루었다. 한이 맺혔던 일들을 호소하여 동학조직에서 처결해 달라는 한 가지 뜻 때문이었다. 상주에 집강소를 따로 설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상주 아래의 김산에는 동학 조직의 지도자가 도집강이 되어 개혁에 앞장서고 있었다. 집강소란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도소 또는 접소에서 개혁을 수행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9월에 들어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남접의 전봉준이 무장 봉기를 결정하고 집결령을 내려 전주 북쪽의 삼례에 대군이 모였다. 전봉준의 급격한 활동에 반대하던 장내리의 교단에서도 9월18일 기포령을 내렸다. 기포령의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이었다. 하나는 즉각 무장 봉기해서 읍내의 관아를 점거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학농민군을 보은의 교단으로 접결하라는 것이다.

북접 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충청 경상 강원 경기 황해도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어 읍내 점거에 나섰다. 읍내의 방비가 허술한 곳은 쉽게 관아를 점령하였다. 무기고에 보관된 총과 화약을 비롯한 창과 칼 등은 남김없이 탈취해갔다. 향리들이 막으려 들었던 군현은 철거 뒤에 관아 건물과 읍내의 민가가 불태워지기도 했다. 군영이 설치된 청주에서는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상주에도 진영이 설치되어 관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22일께 읍성을 기습한 2천여명의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선산도 같은 시기

에 점거되었다. 상주의 동학 세력은 공성, 모동, 모서, 화북 등 서쪽 일대가 대단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위에 함창과 예천에서도 합세해왔다. 예천의 동학 도인들은 8월말 읍내를 공격했다가 민보군에게 패하여 많은 수가 상주로 와있었다.

읍성 안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객관에 지휘부를 정했다. 그리고 가담자 중 향리는 피신한 육방 관속들 대신 관아에 들어섰다. 상주 관아의 무기는 모두 꺼내서 무장을 강화하는데 썼다. 경상도 북서부의 대읍인 상주와 선산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당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왕조정부는 당시 전라도뿐 아니라 이 지역조차 지킬 힘이 없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장악한 날은 몇일 되지 않았다. 낙동병참부의 일본군이 9월28일 10시께 기습해왔기 때문이다. 우세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은 불과 얼마 안되는 수였으나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올라와서 마구 총을 쏘아댔다. 동학농민군은 여러 사람이 쓰러지자 당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백여 희생자를 남긴 채 읍성에서 밀려나갔다.

일본군이 되찾은 읍성은 향리들이 돌아와 장악한다. 향리들은 예천의 예를 따라 보수집강소를 만들고 5백여 장정을 결속시키고 민보군을 결성해서 질서를 유지했다. 10월에는 의서면 우산리의 정의목이 영남소모사에 임명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민보군을 결성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라고 이 지역 명문 양반에게 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소모사는 양반들이 조직한 의병 지도부의 지지와 왕명의 권위를 바탕으로 집강소의 민보군과 상주 진영의 관포군을 지휘해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게 된다. 각 면의 마을마다 다니면서 접주 등 간부들을 붙잡아 병란죄로 처형하고, 유격병대를 파견해서 충청도까지 수색하도록 했다. 충청도에 주둔하던 북접농민군 대부대는 남접농민군과 합류하기 위해 떠나서 근거지가 파괴되어도 대항할 수 없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그리고 보수세력이 결성한 민보군에 의해 철저히 궤멸되고 말았다. 상주에서는 읍성에서 일본군에게 밀려난 이후 재기를 시도조차 못했다. 북접농민군에 합류해서 공주공방전에 참여했다가 가까스로 돌아온 사람도 민보군의 추적에 의해 고향마을에서 잡혀왔다. 간신히 피신에 성공한 사람은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상이 지금부터 1백년 전 경상도 상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한 것이다. 향촌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이 대변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2대, 3대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난의 진앙이 되었던 이 사건은 아직도 이들에게 절절한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다.

상주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념사업회가 신규회원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기념사업회의 여러 활동과 조직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문화행사에 무료로 초대받게 됩니다.
이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료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료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의 연회비는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의 뜻이 있으신 분은
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고 회비를 입금시켜 주시면 됩니다.

◆ 연 락 처 ◆

경북 상주시 남성동 12 (우편번호 742-010)
전화 (0582) 34-3690 (FAX)
(0582)535-2421

계좌번호 : 농협 781-01-039195 (동백사)

상주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